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보성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주세요”

겸백면희망드림협의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민관 지속 협력해 모든 주민 관심 갖도록 노력”

보성군 겸백면희망드림협의회(위원장 허호행·박형식)는 지난 23일 복지이장, 복지기동대, 행복지킴이단,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2019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 등을 발굴하는 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위기가구 발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박형식 공동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겸백면 희망드림협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다. 허호행 겸백면장은 “우리동네 문제는 우리동네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겸백면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겸백면 희망드림협의회는 2016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로당 집합 사업, 안전순찰이 설치사업, 집수리 사업을 비롯한 특화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무안군, 저소득 장애인가정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한국공항공사 “도와주고 싶어요” 공모사업 선정



무안군은 지난 19일 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 선정되어 장애인 조순가정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현

경면에 거주하는 사례관리가정 저소득 장애인 조순가정세대로 후후된 주거환경으로 손자들의 공부방이 별도로 없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차에 한국공

항공사 「도와주고 싶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이 날 주거환경활동에는 하늘로봉사단 등 총 10여명의 주거환경관련업체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부방 수리 및 책상 등 가구를 설치하였다. 참여한 봉사자들은 초여름 무더위에 고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조현병은 범죄 아닌 감기·고혈압”

정신장애인 팟캐스트 화제



안인국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용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뒤 세상은 그의 조현병 이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후 조현병 환자 관련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어느덧 ‘조현병=잠재적 범죄자’라는 등식을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모든 정신장애인이 잠자코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인을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용기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팟캐스트방송 ‘탐사자 인권톡(Talk) 10(텐)테시벨’(http://www.podbang.com/ch/7768)에 출연하는 정신장애인들이다. 2015년 시작된 10테시벨 방송은 어느덧 5년째를 맞았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이 방송은 정신장애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방송 제작과정도 구색을 갖췄다. 5명 안팎의 정신장애인들이 제작회의를 열고 각자 원고를 제출한 뒤 편집과 각색을 거쳐 대본을 완성한다. 지난해 1년간 청취자 수가 7412

명에 달하는 등 10테시벨 방송은 이제 정상계도에 올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미현(43·사진)씨는 10테시벨 방송 시작 때부터 제작에 참여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종로구 동송3길 일석기념관 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씨는 “원래 말하는 걸 좋아했다. 꿈이 DJ였다. 어릴 때는 성우도 되고 싶었다”며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던 제가 병을 얻고 정신장애인이 되고 나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팟캐스트 방송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니 참 좋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24세 때 조현병이 발병해 20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는 상태가 악화돼 5-6회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2016년 1월에도 봄이 안 좋아져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10테시벨 방송 녹음에 참가하는 ‘프로정신’을 발휘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감기, 고혈압에 비유했다. 정신질환도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장애인이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고 싶은 바람을 갖고 살고 있다. 지금 자신이 정신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를 안 좋게 바라보고 욕하고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해선 안 될 존재가 아니다. 감기환자나 고혈압환자처럼 약을 먹으면 충분히 똑같이 평범하게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10테시벨 활동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신장애인에 관한 왜곡된 보도에 항의하고 편견과 각색을 거쳐 대본을 완성한 다. 지난해 1년간 청취자 수가 7412

사회공헌 기업에 대출보증 평가우대 등 혜택

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10~11월 1·2차 심의로 선정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사회공헌을 끌어내고 파트너십을 통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한다는 취지다.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공공기관이 해당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면, 1차 지역심사(10월)와 2차 중앙

심사(11월)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인정 기업은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이 중 우수기업엔 12월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 비용 지원, 기업 연수 등 기회가 주어진다. 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욱 회장은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인정제 시행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